동기부여에 대한 대화: 제1부

**(장면은 정기 회의를 위해 XXXX 라이온스 클럽 멤버들이 한 식당에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회원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찰스: 마리아씨, 반갑습니다. 지난번 회의에 몇 번 안나오셨지요 ?

마리아: 예, 반갑습니다. 강의가 있는 날 늦게까지 아기를 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요. 회의는 길지만, 오늘은 차기 회계연도를 위한 위원회 신청 서명식이 있는 걸로 알고 나왔습니다.

찰스: 맞습니다. 댁이 관심이 있는 뭔가를 찾으려 한다면 오늘 회의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저도 명단과 위원회 위원장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벤: 방금 두 분께서 위원회 가입을 위한 서명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그게 오늘인줄은 몰랐는데, 와서 다행입니다.

마리아: 벤씨, 안녕하셨어요? 작년 캘린더를 보니까 오늘 같아서 제가 클럽 총무님께 전화를 해봤지요. 이번 주라고 하더군요. 저도 당장 서명하려고 오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많은 위원회 위원장들이 자기가 친한 “친구”부터 먼저 선정하기 때문에 빨리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아야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아서요.

벤: 사실 저는 올 해가 클럽 활동을 하는 첫 해입니다. 저는 안내문이나 우편물이 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찰스: 저는 거의 20년 동안 클럽 활동을 해왔습니다. 옛날엔 클럽 회보를 통해 알리곤 했는데, 회보가 1년에 4번 정도 나갈 때 이 같은 뉴스는 회원들한테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와, 그렇게 회원생활을 오래 하신 줄은 몰랐네요. 그럼 클럽 초창기 때부터 활동해오셨겠네요?

찰스: 사실은 클럽이 창립되고 나서 2년 뒤에 가입했습니다. 맹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어서 저도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봉사활동이 재미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벤: 정말 대단하시군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제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그런 기분을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뭐랄까요… 위원회에 가입해서 시키는대로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끝냈습니다. 인정받는 일도 거의 없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의 보람을 모르겠더군요. 올 한 해는 좀 다른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마리아: 좋은 경험이 없으셨다니 안됐군요. 실망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첫 두 해 정도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실제로 지역사회 봉사에도 참여해보고, 제가 기여하고 있는 바가 인정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 생활과 가족생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구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좀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구요. 계획이나 활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제가 애들을 돌볼 시간도 없이 회의는 길어졌구요. 저도 기여하고 싶은데, 제 시간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찰스: 이렇게 댁이 말씀하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나 “무질서함”은 클럽 임원들이 교체될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댁의 말씀에 동감하지만, 뭐 크게 괴로워할 것은 아니지요. 뭐 그런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벤: 뭐, 조금만 더 귀하와 같은 철학을 가져보겠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의미를 믿고, 회원들도 모두 좋으신 분들이지만, 라이온으로서 저는 적합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대화: 제2부

**(위원회 사인 용지가 이미 게재되었고, 멤버들은 어떤 위원회가 가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찰스: 벤씨, 어떤 위원회에 가입하실 건가요?

벤: 홍보 위원회로 갈까 하는데, 죠지가 위원장이더군요. 얘기 듣기로는 그분이 약간 위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마리아: *약간* 위압적이라구요? 제가 2년 동안 그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첫 6주 동안, 그분은 매주 회의를 가지셨지요. 하지만 행사가 있기 마지막 두주 전엔, 매일 저녁 전화하셔서 제가 한 일을 묻곤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회 멤버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감독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불평했더랍니다.

찰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죠지가 클럽 일을 통해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것들을 망치고 있다고 행각하지 않는가보죠?

마리아: 몇 몇 사람들이 한번은 회의에서 그분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마리아: 그분 말씀하시기를, “일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이 없을 때면 우리는 그분 말씀을 흉내내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찰스: 분명 웃음거리가 될만하군요.

마리아: 맞아요. 그분이 소위 말씀하시는 감동을 주는 메시지란 “PR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죠지를 만족시킬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벤: 죠지가 위원회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같이 보이던가요?

마리아: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샘이라는 분 역시 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지요?

벤: 네, 압니다. 청력보존 위원회이지요. 거긴 잘 돌아갑니다!

찰스: 제가 샘하고 같이 일해봤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통상적인 임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봤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상당한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선 대부분 회원들은 이미 스스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방향설정만 필요하다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꼭 창의적인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매일 저녁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샘은 “상”에 대해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죠지는 우리가 일을 모두 마쳤을 때 상패 제작에 많은 돈을 소비했답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한테 끼친 고 모든 고통에 대해 자질구레한 것들이 보상이나 해줄 수 있는 것처럼요.

벤: 그렇군요. 청력 보존 위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군요. 하지만 댁의 말씀이 맞습니다. 샘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어줄 것입니다. 두 분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 당장 신청할겁니다.